

연중 제26주일

제 1독서 : 예제 18, 25-28
 제 2독서 : 필립 2, 1-11
 복 음 : 마태 21, 28-32

술정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필립 2, 5)

강 론

소 리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이동 신부 / 전안 천주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느 공소에 한 할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매달 봉성체를 해 드렸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고백의 기도’를 하실 때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도 입으로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하고 기도하셨다. 처음에는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았다.

그 집 안방에는 기도문을 큰 글씨로 써 벽에 붙여 있었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니 ‘팔호 열고(가슴을 치며) 팔호 닫고’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 할아버지께서는 팔호에 관계없이 한글로 표기된 부분도 기도문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고백의 기도를 하실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입으로는 “가슴을 치며 내 탓이여.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라고 기도하셨던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틀린 부분을 고쳐 드릴 생각이였다. 그러나 이미 기도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바로 잡아 드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님을 느꼈다. 바로 알려 드린다고 하다가 혹시 할아버지의 기도를 빼앗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그 할아버지의 기도를 더 좋아하실지도 모르는데…….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는 잘못된 부분을 자신들의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신들의 가슴을 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혹시 우리들은 자신들의 탓이라고 하면서도 가슴을 칠 때는 ‘네 탓이오’라고 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필립 2, 5)

국회의원님들께

국회의원님들 왜들 그러십니까. 나라 안팎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들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저지르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정신들 차리십시오.

신문만 펼치면 당신네들의 낯뜨거운 얘기들이 줄 줄이 터져나와 실망과 분노로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요. 모르실 리 없겠죠.

외유나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호화쇼핑으로 말썽을 일으킨 국회의원님들, 시청 잔디밭에서 축하비행까지 펼치며 아들 결혼식을 호화판으로 치룬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워 월급을 챙기는 일부 국회의원님들. 이런 것들이 국민과 고통을 같이하고 언제나 나랏일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인지요.

해서는 안될 일. 서민들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위해 대학입시보다 어려운 공천경쟁을 뚫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뤄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까? 그런줄 모르고 당신네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기업들의 감량 시책으로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판에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요.

스스로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도 혀리띠를 졸라매는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

술정이 산책



2000년 대희년

신앙의 맛도 신토불이

김진소 신부 / 호남교회사 연구소

조선시대에 화전 농사를 잘 짓기로 말한다면 천주교 신자들을 따라 올 사람들이 없었다. 박해가 치열해지면서 교우들은 늘 쫓기는 신세가 되어 목숨을 보전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맹수들이 살던 곳,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는 깊은 산속, 외부와 멀리 단절될만한 곳을 찾아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곳은 누가 보아도 농사지를 염두도 못 낼 곳이었다. 누가 심산궁곡이나 가파른 비탈, 깎아 지른 절벽 같은 곳에 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땅에서 용케도 조, 밀, 수수, 채소 특히 담배농사를 훌륭하게 지었다. 한데 너도 나도 모두가 담배농사를 경작하는 바람에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빚는 경우가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런 교우 마을을 찾아와서 화전 농사를 배워 갔다.

이렇게 2,3년 죽게 고생해서 겨우 연명할 만하면 외교인들이 찾아와 밀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벼룩의 간을 내 먹을 일이지 그 가난한 교우들의 재산을 약탈해 갔다. 이런 경우 말고도 관(官)에 마을이 노출되면 다 익은 곡식하며, 하찮은 것일 망정 근근히 모은 재산을 팽개치고 정처없이 방랑의 길을 떠나야 했다. 이런 상태를 2,3년이 멀다하게 겪는 교우들이 언제 글을 배울 짬이 있으며, 무슨 수로 신앙 서적을 구해 볼 기회가 있었겠는가. 교우들 중에는 교리문답이며, 조만파(아침, 저녁기도), 복음성경, 신심서들을 암송하며 지냈다 하니 신통한 일이지만 대부분 주의 기도, 성모송, 십계명을 외고 있는 정도였다.

1866년에 순교한 베르뇌(장) 주교는 1856년에 입국하여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일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신앙서적 보급을 서둘기로 했다. 그러나 교우들이 글을 모르면 책은 무엇에다 쓰랴. 그래서 1857년 사목교서를 통하여 모든 교우들은 자녀들에

게 반드시 글을 가르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그리고 교회의 인력을 충동원하여 1862년부터 출판물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1864년에는 인쇄소를 차려 교회의 공용 언어인 한글로 된 8종 13권의 책을 간행 보급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베르뇌 주교는 “잊지 마소 잊지마소”로 시작하는 「천당노래」를 손수 지어서 교우들의 신앙을 독려했다.

그러나 베르뇌 주교와 선교사들은 일부 교우들의 자질에 불만이 커다. 한국인은 별로 생각이 깊지 못할 뿐 더러 정신도 신중하지 못하지만 천주교 진리를 설명해 주면 즉시 감동해서 입교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도 달게 받는다 했다. 하지만 막상 교우가 되면 진리를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특히 여자들과 무지한 남자들이 그렇다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했다.

어찌 그 책임이 교우들에게 있는가. 선교사가 없던 시절 지식인 교우들이 그랬듯이 한국인의 감정, 의식, 생각, 사상, 문화를 이해하여 진리를 설명했다면 사정을 달랐을 것이다. 신앙의 이해와 설명은 서구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토불이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선교사들의 말대로 신앙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선조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어느 학자들의 말대로 선조들은 현세적인 기복신앙과 치욕에 대한 공포나 내세에 대한 열광 때문에 고통과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었다. 조상들은 교리에 맹종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가치보다 먼저 섬겨야 할 인류의 영원한 아버지께 효도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 하느님께 대한 ‘효’ 사상이야말로 신토불이 신심이었다.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ドレス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옷 무료〉
유 순 이(가타리나)
전통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주)82-2347 (야)225-5755

김회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자리)
☎ 226-7600~1

진도 패션 전주점

모피, 무스탕, 남성복 전문매장
· 9월20일까지 세일(50%~20%)
· 연중무휴
손한성(바오로) · 정정님(가타리나)
전주시 고사동(구)역진오거리 천보당
☎ 231-2005~7

성심 목공업사

장의자, 성구, 전열장
각종가구, 실내장식
서 옥 봉(스테파노)
공장-전주시 산정동 동신철강 옆
☎ 242-1747

장 깐

당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 선교교육 연수 안내 —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각 본당의 모든 단체 임원과 회원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선교하는데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번 ‘선교교육연수’에서는 그 동안 과학적인 선교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온 광주교구 김영대(루수)형제와, 다년간 선교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체험하고 있는 인천교구의 하원명(파스칼)형제의 현장감 있는 선교체험 등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람밖에는 어부가 되도록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어떤 모임에서나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이 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2시30분 ~ 6일(일) 점심식사까지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참가대상 : 본당 선교분과 위원, 레지오 단원, 제 단체장 및 일반신자

참가비 : 25,000원

문의 : 전주교구청 사목국 (0652) 85-0041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 축 ! 견진 : 10월 6일(일) 오전 10시, 소양 성당
- 군인주일 2차 현금 : 10월 6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교구장 사목방문 : 10월 4일(금) 수류, 요촌 성당
- 부안 성당 설립 70주년 기념행사 : 10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부안 성당
- 어린양 잔치 : 10월 3일(목) 오전 9시30분, 윤호관
- 중 · 고생 성가 경연대회 : 10월 6일(일) 오전 9시30분, 윤호관
- 여성 55차 꾸르실료 : 10월 3일~6일, 천호 피정의 집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10월 5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
- 전주 성십여자 중 · 고등학교 개교 50주년 :
 - 기념축제 - 10월 2일 오후 3시, 7시30분, 학생회관
 - 기념식 - 10월 3일 오전 10시, 성십여자 중 · 고등학교
- 후끌라레 모임 : 10월 6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 * 축 ! 영명 : 10월 4일(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김기곤 신부님

꿈동산 완구점

자전거, 미끄럼틀, 그네
농구대, 기타 완구일절 주문

황 의 성(요 한)
박 옥 미(소피아)

주공3단지 앞 쇠외과 옆
☎ 227-1919(완구원구)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 252-0103~4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 · 이해경(글라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 253-3232, 254-2631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울LEN, 팬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퐁소) · 황진숙(안젤라)
- ☎ 88-7717~8

요십이 (1205) 긴병오



예수회 성소자 모임

-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6시
(매월 1, 3째 토요일)
- 장소 : 서강대내 예수회 지구본부
(K관 아래)
- 자격 : 대학재학 이상
- 문의 : (031)43-3045제병령 신부
(031)47-3045, (02)719-1803정강엽 수사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 모임

- 일시 : 10월 5일 오후 5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장소 : 동산동 천주교회내 수녀원
- 문의 : (062)571-3004
(0652)212-3233
(성소상담 수시가능)

